

‘섹슈얼리티’, 한국 근대문학사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

- 이해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 소명, 2007

김미정*

이 책은 1920~30년대의 한국동인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기존의 관습화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도구화되었는지를 ‘섹슈얼리티’라는 그물코로 엮어내려는 포부의 산물이다.

‘1930년대 소설강독반 스터디’를 하며 “이른바 B급 작가의 작품까지도 푸지게 읽을 수 있었던” 면학 풍토에서 안목을 키워 온 저자는 남성중심적 또는 여성이 배제된 기존의 근대성 논의와는 달리 여성의 위상과 경험을 근대문학사 논의의 한가운데로 끄집어들인다. 그리고 한국 근대소설에서 자기 정의의 결정권을 지닌 근대적 자아, 남성 지식인의 표상과 그들의 남근주의, 식민주의, 민족주의를 관통하는 일관된 특징 속에 여성 섹슈얼리티를 설정함으로써 근대문학사에 섹슈얼리티의 서사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근대성이 비단 남성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인식론적 궤적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들을 근대의 외곽에 존재하는 신화적 전통쯤으로 비가시화 하는 일은 일종의 ‘해석적 폭력’일 수 있다.

저자는 1920~30년대의 한국 소설문학 텍스트들을 꼼꼼히 분석하면

* 전주대 국제교육교류원 책임직원교수

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으며 여성을 어떻게 재현했는가. 또 여성들, 특히 하층여성들의 여성성이 근대성과 식민주의 담론의 공모아래 어떻게 전유되는가하는 과정을 짚어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근대여성인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남성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구조와는 다른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여성성의 지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 다는데 의의가 있다.

책에서 세세한 항목 하에 논의되었던 근대소설 속의 섹슈얼리티의 서사를 다음의 네 항목으로 다시 갈무리하면서 이 책의 논지와 평자의 지향점을 밝히는 것으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섹슈얼리티’, 타자의 표상체계

저자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을 근거로 사회적 삶의 구체적인 형태를 일별하게 하는 개념인 섹슈얼리티를 통해 개인과 사회,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주체와 객체, 성격과 환경 등 한국 근대문학을 논하는 이원적 틀을 뛰어 넘는다. 여기서 ‘젠더’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 논의도 여성편향성으로 해석되는 것은 지금까지 젠더나 섹슈얼리티가 남성에게 대해 억압의 문제를 일으킨 적은 드물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기에 섹슈얼리티의 전경화는 한국 근대소설의 근대적 자아의 정체, 그 경계짓기의 표상체계를 전복하는 데 일조한다.

20세기 전반기 근대한국사회에서 모든 여성상은, 정숙한 여성으로부터 요부에 이르기까지, 남성이 독자적으로 근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기제가 될 뿐 주체화 된 적은 없었다.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의 관점을 떠나 여성성은 하층민적 가치와 동일시되었고 이는 남성이 금력과 도덕의 주체로 가부장제적 폭력을 휘두른 결과이다.

이광수의 『흙』에 등장하는 이성적인 남자 주인공처럼 소설 속에 나타난 근대적 자아는 남성 지식인이다. 반면 이상화된 여성상이란 심훈의 『상록수』에서 순결한 처녀 ‘채영신’ 같이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의 도덕적 우월성에서만 정체성을 갖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나도향, 채만식, 이태준, 심훈, 이상, 김동리 등 식민지 시대의 대표작가와 작품은 남성 지식인의 성적 욕망의 문제를 기저에 깔고 남성중심의 이성과 도덕률이 구심점을 이룬 동심원적 서사이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이상의 문학세계에서조차도 성 역할의 전도라는 상황과 성적 욕망에 대한 도덕적 호소라는 근대적 자아의 위기가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어두운 시대란 그 시대 속에서 공적 영역은 희미해지고 세계는 모호해져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이해나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것 이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시대”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일제시대의 정치는 공적 영역이 희미해져서 지배와 억압의 전략이 되었고 사적 영역인 개인의 자유가 상실된 억압의 상태였다. 그런데다가 식민지하의 남성들은 자신들이 억압받는 타자였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자신이 주체로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자신을 억압해 온 상황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20~1930년대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양상은 식민지 경제의 피폐화와 맞물려 매춘과 식민지 정책이 빚은 수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젠더보다 정치적 영향을 더 우위에 두었던 찬드라 모한티의 이론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1920~30년대 문학 텍스트에서 근대적 자아는 단지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열화함으로써 탄생하였다. 식민 지배자의 경우 지정학적인 인종적 경계가 차이의 서열화를 구축하는 기

준이었다면 식민지민인 남성지식인에게 그 경계는 젠더와 계급이 그 기능을 하였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이상화된 여성상이란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증하는 한에서의 정체성 즉 처녀성과 모성성에 결박된 존재였다. 여성의 성역할과 성적 규범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민족주의 좌파나 우파나 사회주의자나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이 섹슈얼리티에 의해 규정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남성중심적인 성규범과 성 역할의 표상체계는 지식계층의 사상적 차이와 관계없이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탈적 성의 주체

섹슈얼리티란 단지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푸코의 견해를 비추어 볼 때 섹슈얼리티는 관계적인 것으로서 그 주체는 고정적이지 않다.

한국문학사에서 본격적인 근대소설의 출현은 문학의 도구성과 집단 및 공동체의 운명에 무게를 실었던 전대의 계몽주의 문학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연유로, 1920년대 동인지문학 내 대부분 소설의 제재는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사랑 혹은 성 때문에 겪는 갈등을 주시했고, 거기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양상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로 나타난다. 1930년대 대부분 장편소설에서 일제 말기 신세대 소설까지 성 문제에 대한 모랄이 작품의 서사를 규정하는 가운데, 여성성은 처녀성과 모성성에 국한되어 지식인 남성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증하는 종속적, 기능적 존재로 재현되었다.

근대적 자아가 텍스트의 내부에서 제거되고 요부형 여성이 등장하는 20년대 소설이나 30년대 중, 후반 토속적 인간형의 세계를 그린 소설에서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철회되지 않았다. 더욱이 여성의 욕

망 특히 하층민 여성의 성적 욕망은 훨씬 본능적인 성격으로 두드러져 자기 통제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0년대 신여성의 경우도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연애를 내세울 만큼 성적 욕망이 강한 자연적 존재의 차원에서 조명되었으며, 하층민의 경우는 아예 도덕이나 규범 등 제도적 차원을 벗어난 상태의 성욕을 지닌 여성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위계질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하위에 놓인 하층민 여성을 통해서만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성적 욕망이란 근대적 자아로 버젓이 서기를 원했던 지식인 남성 주체에게는 대단히 억압적인 욕망이었음을 상대적으로 보여준다.

케이트 밀레트는 가부장제 하에서 남녀의 부부관계가 사유재산적 소유관계라 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관계를 ‘성의 정치’라는 용어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일제시대의 룬펜이나 지식인이 아내의 불륜을 대놓고 정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남성이 정한 성의 정치에서 스스로의 도덕성의 해체이며 일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일탈적이라고 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오히려 남성의 섹슈얼리티보다 더 진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성의 정치에서 벗어난 남성성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또 숭배와 질시의 대상이었던 신여성의 형상이든 남성을 굴복시키는 하층민 여성이든 ‘팜프 파탈’이라는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들의 성적 공포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팜프 파탈의 내재적인 성격인 공격성이 수동적 여성성이라는 남성의 규범체계를 전복시키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자유연애의 파멸을 모두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남성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던 근대담론에서 일탈의 주체에 대한 관심은 미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남성을 보는 시선 역시 근대담론 안에서 화석화를 면할 수 없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남성 다시 읽기’ 또한 여성

의 서사를 더 확연히 하기위해 에둘러 가는 하나의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창조적 욕망의 기제에서 탈관능화된 사랑의 승화로

이광수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문학에 반대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내세웠던 1920년대 동인지문학의 주도자들은 근대적 자아의 소설적 형상화를 예술과 사랑을 통해서 구축하고자했다. 여성을 자연적인 존재, 세속적인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여성과의 사랑은 예술과 등치될 수 있었으며 예술과 사랑사이에는 교환법칙이 성립되고 있다. 여성은 인간이 낭만적 예술을 향유하는데 있어 창조적 욕망의 기제로 변모한다. 그리고 그 낭만적 사랑의 대상인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객관적 자아확인의 매개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바로 남성의 객관자로부터 이야기될 수 없는 여성, 여성성이란 애초에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낭만적 사랑이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삶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몰각한 남성의 자기투사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소설가 이상이 타자를 자아화하는 방식은 동일시와 배제 그 어느 것으로도 귀착되지 않는 것으로, 그가 향유한 결핵과 미약 모두는 위험한 관능의 메타포로 해석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결부되어 죽음에 이르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관능은 근대적 자아의 무기력 상태와는 무관하게, 낭만주의적 문학에서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물상화되어 있다.

1930년대 소설에서 낭만적 사랑의 시련이 제기하는 것은 결혼제도의 경제적, 물질적 토대문제만은 아니다. 인간을 사유하는 존재와 육체적

존재로 나누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발상에서, 이 ‘낭만적 사랑’은 이미 파행적인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점은 1920년대 소설에서 다소는 선언적인 형태로만 제시되었던 성적 규범과 민족주의의 결합이 1930년대에 이르면 구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탁류』의 초봉과 『흙』의 정선은 결혼한 여자가 정숙한 신부로 남지 못할 때 야기되는 파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러한 파탄이 사회적 의미에서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성에 대한 단죄라는 것은 여성에 적용된 이분법의 투영이다. 그녀들의 삶의 편력이 성적 욕망에 의지해서만 여성을 취하는 또 다른 남성들에 의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이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정조와 순결이라는 것이 실상은 여성에게 강제된 규율이자 덕목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준다.

치녀성만이 모성성으로 이동하는 정당한 자격을 취할 수 있는 1930년대 계몽주의 소설에서 여성상은 새로이 구성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은폐되거나 배제되고 단지 국가와 국민을 돌보는 여신과 같은 존재가 이상으로 부각된다. 『흙』이나 『상록수』에서는 억압적인 성의 이상화된 표상이 곧 바로 계몽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여성의 성적 욕망이 자연적으로 인식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탈관능을 귀자연과 동계선상에 놓고 그것을 승화된 모습으로 전유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장편소설들은 타락한 성적 욕망의 퇴폐성과 범죄성을 부각시키면서 탈관능화된 사랑의 비전으로 사회운동, 농촌계몽운동, 사회사업, 예술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계몽의 주체가 아니라 부성 혹은 부권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이 계몽 운동에 뛰어드는 것은 탈관능화된 사랑의 승화라기보다는 가부장적 질서에서 부여받은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승화란 성욕적인 혹은 사회적으로 저급한 대상을

향해 있던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높은 발달 단계에 있는 행동으로 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목에서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다는 것이 이분법의 후열에 선 오리엔탈리즘의 재현이고, 이는 오리엔탈리즘에 내포된 문명화의 사명과 상동성을 띠며 근대의 정치적, 사회적, 성적 지배질서의 내면화와 직결된다.

4. ‘하층민 여성’은 말이 없다

현진건의 「고향」이 부권사회의 남성희포의 잔재로 성이 물상화된 예를, 김동인의 「감자」는 아버지와 남편의 것으로 귀속되는 여성의 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가난이 어떻게 하층민 여성을 성매매의 현실로 내몰았는가를 파악하면서 그 궁핍상보다 하층민 여성들의 성적 분방함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도덕성도 자의식도 존재하지 않는 하층민 여성의 성이 형상화된다. 하층민의 성은 남성우월적 질서 그리고 계급적 종속관계에 속박되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주 저열한 것으로 자리매김한다.

남성을 과멸로 이끄는 하층민 요부형 여성은 1925년을 전후로 대거 등장한 문학적 현상이다. 그리고 하층민 여성을 통해 물질적 궁핍이 매춘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종국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기질적, 생물학적 차이의 문제로 둘러지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남성의 도덕적 자의식이 꺾힐당하지 않고도 수월하게 억압된 성적 욕망을 투사하는 존재로 하층민 여성을 택하였고 작품의 무대도 도시가 아닌 시골을 선택하여 지식인 인물을 전적으로 배제한 의도 역시 같은 인식선상에 있다. 사회적인 격동의 시기에 성이테올로기와 자본 그리고 식민 의식은 가세하여 그 정도가 배가되는 효과를 낳는다. 더구나 하층민 요부형 여성의 남편은 대부분 무능력자로 아내에 기생하는 인간이며 따라서 여

성의 성은 생존의 방식이었는데도, 그녀들은 기존의 도덕규범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형상화됨에 따라 그녀들의 사회성과 역사성은 무화된다.

1920년대에 비하여 1930년대의 토속적 인간형은 자연의 성격과 함께 부조된다. 20년대의 시골이 농촌의 계급질서와 거기서 야기되는 서사적 갈등의 배경으로 채택되었음에 비해 30년대 시골은 문명 또는 문명화된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대비되는 자연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배경으로 제시된다. 특히 김유정이 작품 속에서 형상화한 시골은 이성을 모르는 원시적인 생명력과 본능의 세계가 펼쳐지는 무대였다. 토속적 세계에서 자연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문명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다.

‘들병이’라는 독특한 매춘의 형태가 나오는 이효석의 작품들에서는 성에 대한 타부와 규범이 파괴되고 있다. 시골의 여성들이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과 절치는 한결 수월하며 수치심을 모르는 본능으로서의 성이 나타난다. 소설의 여성들은 노골적인 성적 욕망에 항상 천연덕스러운데 그것은 내면화된 자연성에 근거한 여성, 역사성과 사회성의 층위가 배제된 존재로서의 당연한 행동유형인 것이다.

문명화과정을 육체의 부분과 기능을 감추는 과정으로 파악한 엘리아스의 가설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화됨에 따라 육체는 점차적으로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가고 따라서 점점 독립적이고 사적인 개체가 되어 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와는 반대로, 의식의 거세를 통해 확립된 본능의 세계에 던져져서 그것을 운명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우리의 ‘서발탄’은 아무 말이 없었다.

∴

한국 근대문학에서 섹슈얼리티의 서사분석은 다층적인 의미를 양산

하고 복잡하게 변형된 여성성의 이미지를 통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여성적인 하위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시각적인 전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 제국주의, 문화적 다원주의가 범람하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근대성과 여성주의의 문제는 지배 문화와 피지배문화 간에 존재하는 모호한 지점들을 공유하며 이질적인 문화 주체를 낳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엇보다 근대성의 논의와 관련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이 지점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가부장적인 신화와 한국 근대남성들의 식민화된 내면성과 근대 이데올로기가 남긴 오욕의 역사를 여성성이라는 또 다른 성격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

한국 근대사회에서 여성은 제국주의의 피식민 억압에 의해, 식민지 남성성에 의해 이중으로 주변화된 타자 즉 식민지 내부의 식민지였다. 합리적, 이성적 절대주의를 향한 남성중심적 사고체계는 이들이 추앙하고 미화한 처녀성 내지는 모성애조차 부권사회 내의 학습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여성을 개발되지 않은 처녀림에 비유하면서 문명인들의 휴식처이자 낭만적 예술의 근원지로 표상화한 것은 남성적 시대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프로젝트’ 짚으로 이를 붙일 수 있겠다.

근대 이후, 20~30년대 모던여성, 50~60년대 자유부인, 70년대 호스티스, 90년대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공주병, 2000년대 사이버상의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와 정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했다. 한 번도 비껴가지 않았지만 남성의 기준에 의해 특정 집단으로 형상화되었을 뿐 주체가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근대의 표상들이 여성을 반복적으로 비역사적 타자성의 영역에 위치시키고 그럼으로

써 여성의 능동적인 힘, 동시대성, 인간성 등을 축소시키려고 해왔다는 리타 펠스키의 지적처럼.

이 책은 한국의 근대문학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 지배라는 유비관계를 포착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적 욕망의 주체는 누구였으며, 대상은 누구였는가, 또 성적 욕망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그 지향은 당대의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인식론과 맞닿아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그러는 중에 담론적 주체인 근대적 자아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역사적 주체의 생생한 모습으로 부상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스피박은 하위주체의 성별화 과정을 중시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하위주체의 삶과 그 삶에 대해 ‘말하기’나 문화적 재현에 결부된 문제들을 부각시킨다. 문화담론이든 문학비평이든 성, 계급, 인종적인 측면에서 겹겹의 그림자 속에 있는 여성하위주체의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강단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에게 ‘말걸기’를 시도하기 전에 메워야 할 틈새는 얼마나 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섹슈얼리티’라는 새로운 시각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남성 중심의 역사였음을 재확인시키고, 여성의 억압과 종속에 관한 역사임을 깨닫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근대에서 현대를 관통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분명히 하고 여성성이 갖는 문화적인 전략적 코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위계질서가 성적 위계질서와 짝을 이루고 있기에, 역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전경화하여 사적 영역에서 사회를 재조명하는 인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근대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계속 쓰여져야만 한다”.